



* 1.28.(목) 오전 0 시부터 보도 바랍니다 (한국/일본시간 기준) *

**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또는 수록자료 이미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스위스 9 개 인권단체, 북한정권의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실종 사건 통합 데이터베이스 첫 선보여

- 피해자, 가해자 등 진상규명 실마리 모두 추적 뜻 담아 “FOOTPRINTS” 명명
- 2017 년 착수, 2019 년부터 참여단체 · 사건기록 통합 속도 붙어
- 1950-2016 년 2 만여 명 피해자 수록, 데이터 입력 대기 중인 피해자는 7 만여 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FOOTPRINTS”: <https://nkfootprints.info/en/>

주요기능과 사용자 가이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D9_8JZX7hg&feature=youtu.be

28 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휴리독스(HURIDOCs), 북한인권시민연합, 6 ·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정의연대, 1969 년 KAL 기납치피해자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6 · 25 국군포로가족회는 북한 내에서 벌어졌거나 북한이 저지른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실종 사건 기록을 모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한다. 2019 년부터 참여단체들이 늘면서 본격화된 이 프로젝트는 피해자, 가해자 등 진상과 해결 실마리를 모두 추적한다는 뜻으로 FOOTPRINTS 로 명명됐다.



FOOTPRINTS is a joint civil society project to document and publish information concerning reported cases of arbitrary detention, abduc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in and by North Korea, including the victims, perpetrators, proceedings to seek redress, relevant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North Korean resources. The open, accessible and searchable online database also provides relational and geospatial information to the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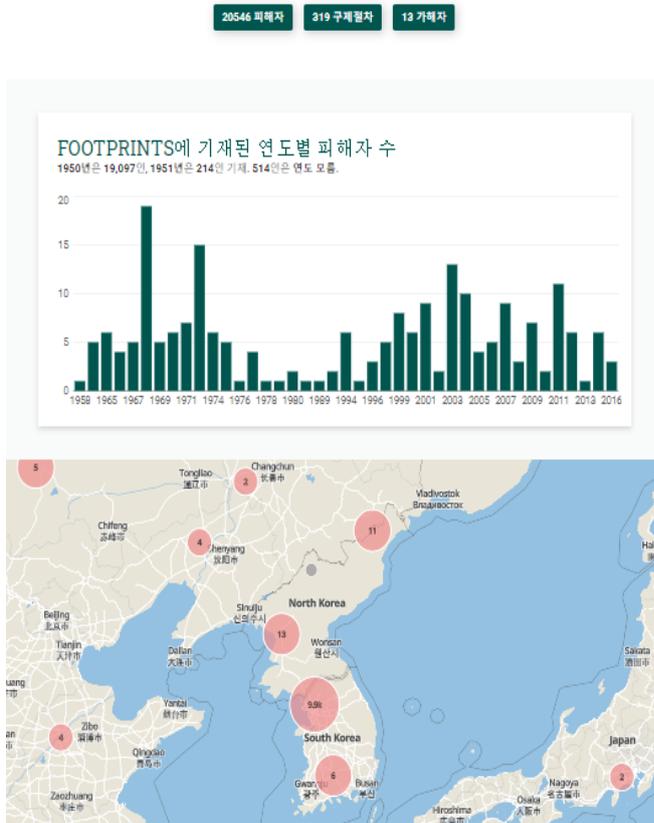
20546 Victims

319 Proceedings

13 Perpetrators

FOOTPRINTS 데이터베이스는 수집과 공개 가능한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와 사진 외에도 UN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 UN 강제적 · 비자실적 실무그룹(WGEI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제출한 진정서와 북한당국의 혐의 부인 답변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피해가족과 지원단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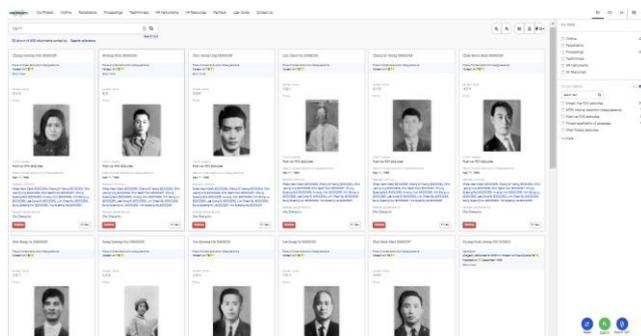
수십 년간 비밀해제자료를 찾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과거 중앙정보부 등 한국 정보기관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과 정부, 일선 행정기관 문서들도 공개한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도 수록되고, UN의 관련 결의와 각종 보고서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FOOTPRINTS는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벌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규모와 국제적 성격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고, 길게는 70년 넘게 해결을 기다리다 고령으로 사망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건 기록을 영구 보존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배상, 추모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실종 기록들은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고 분실되기도 하였다.

FOOTPRINTS는 피해자와 가족, 국내외 인권단체와 활동가, 법조계, 학계, 언론, 일반 시민이 정부나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압력을 높일 것이다.

북한에 납치·억류된 우리 국민과 국군포로는 15~20만 명에 달하지만, 역대 한국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진했고, 기록의 최신화와 보존, 정보공개도 미흡해 피해가족들은 한국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져왔다.



기록 통합과 표준화 작업, 데이터베이스·검색 웹사이트 구축은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맡았고, FOOTPRINTS가 활용한 Uwazi 등 인권피해 사건의 기록·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위스의

국제 NGO 휴리독스(HURIDOC)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단체-인권단체들 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기록통합,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협업은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국제인권조사 네트워크인 액세스 어카운터빌리티(Access Accountability)가 노하우의 국제적 확산을 돕는다.

2017년부터 미국 국무부의 후원으로 전환기정의위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프로젝트로 착수했고, 2021년부터는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유지하고 기록물과 기능을 강화한다. FOOTPRINTS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도록 영어, 한국어, 일본어까지 3개 언어로 구축했고, 일본어 정보를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어나 스페인어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북한내에서 북한 주민의 구금과 실종 사건의 조사와 기록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피해가족단체 중 하나인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납북인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수십 년간 끝없는 일이었다”며 “소중한 기록이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보존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소희 선임간사는 “단체마다 탈북민과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단체들의 그간 조사기록 노력이 한 곳에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휴리독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UWAZI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윤다예 기술담당관은 “FOOTPRINTS는 여러 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오던 기록과 보존방법을 표준화해 효율적 기록과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FOOTPRINTS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유엔 진정과 소송 제기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사무국 / 전화 02-722-1162, 이메일 info@tjwg.org